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일본국립공문서관의 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조 혜 전 (Hye Chon Cho)*

정 연 경 (Yeon Kyoung Chung)**

목 차

- | | |
|--------------------------------|---------------|
| 1. 서론 | 4. 협력방안 및 시사점 |
| 2. 선행 연구 | 5. 결론 |
| 3.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
비교분석 | |

<초 록>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문화유산기관들의 정보자원 공유 및 통합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기관들의 자원공유를 목표로 통합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한 후 향후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 및 법령을 중심으로 역사, 체제, 법령, 정책, 그리고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다. 양 기관의 협력 방안으로는 소장 자료의 역사 관련 통합 DB와 재난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공동전시회 개최, 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일본국회도서관, 일본국립공문서관, 국가도서관, 국가기록원, 협력

<ABSTRACT>

From the beginning of the digital age, the need for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to share information resources and integrate services has increased, causing many countries to make efforts for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line with this, this study examine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and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seeking ways for further cooperation between the two organizations. Their websites, articles, and legislations were reviewed to analyze their histories, systems, laws, policies, and services. In conclusion, building an integrated database for materials in history and an archive for disaster information, as well as conducting joint exhibitions and learning programs, were drawn as viable ways for collaboration.

Keywords: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National Archives of Japan, national library, national archive, cooperation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박사과정(hjjcho@naver.com)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7년 4월 5일 ■ 최초심사일: 2017년 4월 29일 ■ 게재확정일: 2017년 5월 19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2), 79-99,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2.079>>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인류의 문화유산을 다루는 대표적인 문화유산기관인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은 인간의 지식 활동에 대한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이를 이용시키고 보존 관리함으로써 사회와 소통해왔다. 디지털 시대로 들어서면서 문화유산기관들의 정보자원 공유 및 통합서비스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이러한 기관들이 갖고 있는 인류 지식 활동 결과물의 수집과 정리, 그리고 활용과 보존이라는 공통점과 정보기술의 발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설문원(2008)은 디지털 환경에서 수집대상 자원의 형식과 매체가 유사해지고 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 경험, 지식의 유사성, 새로운 디지털 정보 자원의 등장으로 인해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듯이 캐나다에서는 2004년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관이 LAC(Library and Archives Canada)로 통합되어 문헌 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이용을 위해 하나의 조직 안에서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되었다. 또한 영국에서는 국립기록관과 역사위원회가 통합되었고 2011년까지 MLA(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이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 서비스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IMLS(Institute of Library and Museum Services)가 문화유산기관의 서비스

통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IMLS는 미국 내 2만 2천 개의 도서관과 1만 7천 5백 개의 박물관에 디지털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컬렉션을 통한 연결을 사명으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기록관 등 문화자원 지식기관의 자원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정미라, 2009).

일본의 경우, 2014년 국립공문서관 기능·시설의 이상적인 방향에 관한 조사검토회의에서 국립공문서관의 전시와 학습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국립공문서관을 국회주변에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다.¹⁾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은 두 기관의 이용자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이 주체적이며 효율적으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두 기관이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정책을 강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도서관인 국립국회도서관과 국가기록관인 국립공문서관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비교한 후, 두 기관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기관 홈페이지와 관련 문헌, 법령을 다양한 요소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다른 국가의 국립도서관과 국립기록관이 지향해야 할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國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提言(案) 國立公文書館の機能・施設の在り方に關する調査検討會議(內閣府)(<http://www8.cao.go.jp/chosei/koubun/kentou/20150323/siryoul.pdf>)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역사, 체제, 법령, 정책, 그리고 제공 서비스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또한 두 기관을 운영·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준을 제시한 법률인 「국립국회도서관법(1948)」과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2009)」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두 기관에 관한 학술 문헌도 참고하여 각 기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조사연구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전화와 전자 우편을 통해 추가로 알아보았으며 이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공통 영역과 선행 조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선행 연구

국내에서는 남궁황(1999)이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업무와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업무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반으로 두 기관의 접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서혜란(2005)은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로 이용자의 정보 요구 만족, 효율적 비용, 디지털 콘텐츠의 효과적 이용을 들었다. 박성진(2008)은 박물관, 기록관, 도서관 등 5개 기관의 근대 공문서의 소장 현황 및 서비스 현황 조사하고 각 기관의 근대 공문서의 효과적인 정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기관간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최재희(2008)는 영국의 MLA Council의 조직적 특성과 활동을 분석하여 국가 차원의 문화협력기구 설립이 주

는 영향과 국내에 적용 가능한 요소를 분석하였다. 조윤희(2008)는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간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의 문화정보서비스 창출을 위한 협력 사례를 분석하고 정책, 기술, 인력 등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소연(2012)은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유산기관간의 차이를 좁히고 디지털 보존이란 새로운 책무를 강조하며 각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 현안과 해법에 관한 논의를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건홍(2012)은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부진 이유, 문제 제기,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검토하여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무엇보다도 각기 다른 부처의 통제 하에 놓인 한계를 지적하며 각 부처의 추진 과제를 분석하여 협력할 수 있는 전략을 도출하였다. 최영실과 이해영(2012)은 복합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공통 업무요소를 중심으로 통합 업무기능안과 기능 계획 개발 절차를 제안하였다. 이후 최영실(2013)은 국내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대상으로 라키비움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관 현황 분석 활동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존 라키비움 공간기획 연구의 절차를 정밀화하였고 관련 법률과 지침 등을 활용하여, 보다 현실적인 라키비움 공간기획의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희정, 육혜인, 오유진, 김용(2014)은 각 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공통점을 중심으로 교육서비스 개발 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다. 김민경과 이성신(2014)은 문화유산기관의 공간을 5개 기능별로 나누고 비교 분석하여 공간 중심의 협력 모형을 제시하였다.

국외에서 Rayward(1998)는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이 모두 공통의 디지털 정보를 다루게 되

면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Zorich, Wiabel과 Erway(2008)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한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협업체제 구축을 위한 방법론과 모형을 제안하였다. Yarrow, Clubb과 Draper(2008)는 국제도서관협회 연합보고서에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과 협업체제에 관해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다양한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이나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협력을 위해서는 먼저 기관간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며, 기관들이 협업이나 협력이 가능한 분야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관이나 국가를 비교하여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졌으며 국립도서관이나 국립기록관을 비교하면서 실제로 협업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그러한 가능성이 보이는 방안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다.

3.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 비교분석

3.1 설립 과정 및 목적

일본 입법부 소속인 국립국회도서관의 모태는 명치 23년(1890년)에 개각된 구 헌법하의

제국의회에 소속된 귀족원과 중의원의 도서관과 명치 5년(1872년)에 설립된 문부성 소속의 제국도서관이다. 패전 후 미국도서관사절단의 조언을 바탕으로 국립국회도서관법안성립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소화 23년(1948년)에 아카사카 이궁(離宮, 현 영빈관)에 임시로 국립국회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소화 36년(1961년) 나가다 초(町)에 제국도서관 등의 장서가 합쳐져 일본의 대표도서관이 되었다. 소화 43년(1968년)에 본관이 완성되고, 소화 61년(1986년)에 신관이 건립되었다. 또한 평성 14년(2002년)에 교토에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이, 우에노에 국제아동도서관이 건립되어 총 3개관이 일본의 대표도서관이 되었다.

일본 막부시대에는 기록을 개별적으로 보관하였고 명치유신 이후 수사관을 설치하여 국가차원에서 기록을 관리하였다. 그 후 기록은 국가사업으로 역사편찬을 추진하여 황국사관의 축을 형성하였다. 패전 후 민간차원의 역사가들이 서민들의 생활사와 같은 실증적, 과학적 연구를 위한 기초 사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1951년 문부성사료관의 설치, 1971년 국립공문서관이 설립되었다(高埜利彦, 김경남, 2013). 평성 10년(1998년)에 츠클바 분관의 설치, 평성 13년(2001년)에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내각부 소속 독립행정법²⁾ 공문서관이 설립되었고 11월에 아시아역사자료센터가 개설되었다. 이렇게 국립국회도서관은 국가차원에서 자료를 수집·보존하던 의회와 귀족 도서관을 계승하였고 국립공문서관은 민간차원에서 서민

2) 공공상의 관점에서 꼭 필요한 사무 및 사업으로, 국가가 주체가 되어 실시의무는 없으나 민간에 맡길 경우 실시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주체적으로 독점해 실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ndl.go.jp/>)

들의 실질적 역사 연구 및 보존을 위해 설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설립 목적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조에 '도서 및 그 외의 도서관 자료를 수집하여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에 이바지하는 한편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서 법률에 규정하는 도서관봉사를 일본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또한 국회도서관 정책 「우리들의 사명 목표 2012-2016」에서는 '국내외의 자료와 정보를 폭넓게 수집, 보존하여 지식·문화유산의 기반으로 국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것과 함께 행정·사법 및 국민에게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창조적 활동에 공헌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밝히고 있어 이들을 종합해 볼 때 국립국회도서관은 자료 수집 및 입법·행정·사법 그리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설립 목적은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되어있듯이 건전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지하는 국민 공유의 지적 자원으로서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활동이나 공문서 등을 국민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공문서의 적정한 관리 및 보존, 이용을 꾀하고 이와 동시에 국가 및 독립행정법인 등의 모든 활동을 현재 및 장래의 국민에게 설명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두 기관 모두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보존하여 국민에게 자료를 서비스하는 목적에서는 동일하나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국가기관인 입법·행정·사법 기관의 활동보좌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3.2 관련 법령 및 정책

3.2.1 관련 법령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인 입법부 소속으로 국회도서관법에 준거하여 운영·관리된다. 국립국회도서관을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 되는 법은 총 12장 31조로 구성된 국회도서관법이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조직, 관리, 납본제도, 도서관서비스와 관련된 규정, 규칙 등이 31개, 내부적인 규범인 중요한 내규 및 관장결정이 58개로 총 89개의 법 규정이 있어 보다 상세하고 치밀한 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설립·목적, 임원·조직, 서비스, 수집자료, 납본, 기록, 재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국립국회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르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관련 법령은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특정역사공문서등의 보존, 이용 및 폐기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1988년에 「공문서관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2001년 「국립공문서관법」이 제정되었으나 모두 현용 및 비현용 단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2008년 유식자 회의에서 공문서의 체계적인 보존, 효율적인 업무 수행, 공문서의 국내외의 광범위한 활용 등의 내용이 제언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남경호, 2011).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시행령→가이드라인→각 행정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구조의 통일된 관리체제를 가진다. 특히 「행정문서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현용

단계의 기록을, 「특정역사공문서등의 보존, 이용 및 폐기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비현용 단계의 기록을 다룬다(이경용, 2015).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모두 6장 2절 34조로 구성되어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 제정의 목적과 정의 외에 주로 공문서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국립국회도서관법」은 소장 자료뿐만 아니라 국회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등 내용과 범위가 광범위한 반면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로 문서의 작성과 보존, 정리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3.2.2 정책

국립국회도서관은 2012년 7월 「우리들의 사명 목표 2012-2016」에서 국립국회도서관의 사명과 6개의 중장기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2013년 5월 중장기적 목표아래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전략적 목표를 책정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 활동 보좌 목표 아래 국회서비스의 고도화, 국회 관련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 정비, 외부와의 제휴 강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수집·보존 목표 아래는 국내 출판물의 망라적 수집, 국회서비스를 위한 정보기반의 정비, 전자 유통정보의 수집, 과학기술자료 및 정보의 정비, 문화적 자산의 수집, 자원의 보존 등을 설정하였다. 정보 접근에서는 이용환경의 정비, 자료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제공, 장애인서비스의 향상, 참고서비스 정보의 충실, 국내외의 정보자원의 접근, 서지정보의 이·활용촉진을 수립하였고 협력과 제휴에는 국내 관계 기관 및 국제적인 제휴 협력 촉진, 도서관 도서관 홍보활동을 전략적 목표로 두었다. 동일본 대지진아카이브는 콘텐츠의 충실, 이·활동에 관한

탐색기능의 충실을 책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운영관리에서는 투명성이 높은 효율적인 운영관리, 인재양성, 시설정비를 전략적 목표로 수립하였다(국립국회도서관연보 평성27년도). 이러한 정책 아래 매년 활동실시평가를 실시하는데 <표 1>은 2015년에 중점적으로 실시한 사업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국립공문서관의 주요 업무는 이관된 행정문서와 역사공문서등을 정리·보존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보존과 이용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조언하고 조사 연구 연수를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내각총리대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문서 관리에 대해 상황보고, 자료징수, 실지조사 등도 실시할 수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국립공문서관의 정책은 장기적 계획이 아닌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매년 그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정책 목표는 첫째, 국제적 수준 및 정보기술의 진전을 염원으로 하여 기관과 임직원이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둘째, 국가 공무원으로서 자각과 책임을 갖고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효율화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고 관의 기능 강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성과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국립공문서관의 정책은 <표 2>와 같이 크게 4가지 정책 항목과 7개의 주요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정책 항목인 대국민 서비스와 그 업무의 질 향상은 총 4가지의 조치 사항이 있다. 첫 번째 조치사항으로는 행정문서 등 관리에 관한 적절한 조치로 구체

〈표 1〉 국립국회도서관 정책 중점 사업 내용(2015)

전략적 목표	중점사업 내용
국회활동보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른 고가치적 의뢰조사응답 국정과제관련 조사 결과물 간행하는 등의 조사서비스 고도화 국내외 조사기관 및 연구자 등 및 의회도서관 등과의 제휴 강화
수집·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본법에 의한 자료 수집 강화 앞으로의 장서구축과 장서정비의 존재방식의 검토 유상온라인자료수집 실증실검사업 제4기 과학기술정보정비 기본계획의 책정 평성 26년도 국립국회도서관보정예산에 관련한 자료 디지털화 실시
정보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기 이용자서비스 기본계획의 책정 관내열람이용체제의 정비 당관 디지털화 자료의 도서관송신, 2차 자료정비 등 이활용의 추진 시각장애인 등의 전자정보의 접근 향상 레퍼런스 업무 및 정보의 정비와 충실 중국 관련 자료의 전자도서관프로젝트 참가 새로운 목록규칙책정과 보급을 위한 준비 당관 데이터 이활용 촉진
협력·제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수 등을 통한 도서관협력 촉진 해외로의 정보발신의 상황 등 해외일본연구지원의 개선 일중한 전자도서관 선도에 근거한 협정사업 추진 국제아동도서관의 리뉴얼 개관과 함께 기념전시회 및 기념강연회 등 실시
동일본 대지진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에 관련한 콘텐츠의 확대와 이활용 촉진
운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 시스템의 최적화 추진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 관서관 제2기 시설정비 추진 국제아동도서관 리뉴얼 개관

출처: 국립국회도서관연보 평성27년도
 (http://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0224291_po_nenpo27.pdf?contentNo=1)

〈표 2〉 국립공문서관 정책(2016)

정책 항목	주요 사항
대국민 서비스와 그 업무의 질 향상	행정문서 등 관리에 관한 적절한 조치
	역사 공문서등의 보존과 이용 그의 조치
	연수의 실태, 인재양성에 관한 조치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에 관한 사업 추진
업무운영 효율화	사업비 삭감, 경비 절감
재무내용 개선	필요 없는 재산 국고 납부
그 외 업무운영	체제정비 및 직장환경 정비와 직원연수

출처: 독립행정법민국립공문서관연도목표 평성28년도
 (http://www.archives.go.jp/information/pdf/nendomokuhyou_28.pdf)

적인 내용은 내각부 관련 사법, 각종 가이드라인, 역사공문서와 관련한 각종 기준의 운용과 개선에 관한 전문적 지견을 기반으로 한 조사 분석 조연의 수행,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은 실지조사 실시, 행정기관 및 독립행정법인 등에 대해 역사공문서의 선별의 적절한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 기술적 조언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치사항은 역사공문서등의 보존과 이용의 조치로 이는 보존, 이용, 제휴협력, 조사연구, 국제적 공문서활동의 참가 및 공헌 등의 구체적 활동 내용을 포함한다. 입수 후 이용까지 1년 이내로 할 것, 적절한 수리와 복원, 전자시스템의 보존에 관한 내용, 심사 자료 이용 청구 시 심사기간을 30일 내로 할 것, 상설전시나 디지털 전시로 이용 확대, 지방공공단체 관련기관과의 협력, 공문서 소재지 파악, 국제회의의 적극적 참여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세 번째 조치사항으로는 연수의 실태, 인재양성에 관한 조치로 역사공문서 등의 보존, 이용에 관해 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아키비스트 양성 강화방책을 검토하여 연구 커리큘럼에 반영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마지막 조치사항으로는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에 관한 사업 추진으로 이용자 요구를 반영한 정보제공, 관련기관과의 링크제공 등 관련정보제공 기능 수행, 홈페이지의 콘텐츠 충실을 도모하는 것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 항목으로는 업무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전년대비 2% 삭감, 입찰과 외부위탁 등을 활용한 경비 절감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 항목은 재무내용 개선 사항으로 보유자산을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재산의 국고납

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그 외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인데 체제 및 직장환경 정비와 직원연수, 모니터링을 통한 충실한 내부통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두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주로 각각의 소장 자료, 서비스, 타 기관과의 제휴 및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주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실시한 사업내용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진다. 하지만 국립국회도서관의 정책은 중장기적 계획목표 아래 세부적인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또 매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세우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문서관은 위에 제시된 4가지의 정책항목 아래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여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정책의 범위도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활동보좌에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집정보의 관리, 활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3.3 시설 및 자료

3.3.1 시설

국립국회도서관은 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아동도서관 3곳으로 구성된다. 동경본관과 국제아동도서관은 동경에, 관서관은 교토에 위치한다. 동경본관의 경우 열람실과 자료 형태별 및 분야별로 전문 자료실 등이 14개로 구분되어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은 본관, 츠크바 분관,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세 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관과 아시아역사자료센터는 동경에, 츠크바 분관은 이바라키현 츠크바 시에 위치하

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는 동경에 2곳, 교토에 1곳으로 동서로 나누어 위치하고 있으나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모두 관동지방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인 동경 주위에 소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좀 더 방대하고 여러 형태의 자료를 망라적으로 수집·소장하고 있는 국립국회도서관이 면적이나 시설 면에서 규모가 크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3.3.2 자료의 종류

국립국회도서관의 자료는 도서,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영화, 레코드,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된 문서나 그림, CD, 게임 소프트웨어 등 다양하다. <표 3>은 동경본관의 전문 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관서관의 경우 학술서 중심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며 국제아동도서관은 아동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극용 그림, 딱지 등과 같은 비도서 자료도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소장 자료는 행정문서, 사법문서, 법인문서, 특정역사공문서, 기증·기탁문서, 내각문고 등이다. 행정문서는 각 행정기관에서 이관된 문서이고 사법문서는 사법기관에서 이관된 문서와 평성 12년부터 22년까지의 각 대학으로부터 받은 민사판결원본 등도 포함된다. 법인문서는 독립행정법인 등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된 문서이다. 내각문고는 구 내각문고 소장의 고전적·고문서이다. 행정문서는 행정기관의 직원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로 해당기관의 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하는 것

<표 3> 국립국회도서관 동경본관 전문 자료실 소장 자료

명칭	소장 자료
과학기술·경제정보실	-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관련 참고도서, 과학기술관련 초록 및 색인지
인문종합정보실	- 총기·인문과학분야의 참고도서류, 도서관 및 도서관정보학관련의 주요잡지 등
고전적 자료실	- 귀중서, 준 귀중서, 에도시대이전 고서, 청대이전의 중국서 등
지도실	- 명치시대이후의 1장짜리 지도(지형도, 지질도, 해도 등) 주택지도
헌정자료실	- 일본근현대정치사료(막부 말~현대의 정치가, 군인, 관료의 일기, 원고, 편지 등) 일본정령관련자료(2차 대전 후 미군이 가지고 있던 공문서를 마이크로필름, 연합국 최고사령관사령부나 오키나와 점령 관련 문서) - 일본계이민관련자료 등(중남미, 하와이 등에 직원을 파견하여 수집한 자료로 도서, 신문, 일기, 편지 등)
음악·영상자료실	- 국내발행 레코드, CD, VHS, DVD 등, 녹음자료, 악보
전자 자료실	- 도서와 CD 혹은 CD-ROM 등으로 구성된 자료, CD-ROM 등의 전자자료, 전자 저널(국내의 다수, 우리나라는 KISS)
의회관청자료실	- 국내외의 회의록, 의사자료, 관공보, 법령집, 판례집, 조약집, 관청의 발행자료목록, 요람, 연차보고, 통계자료류, 정부간국제기관간행자료, 법률·정치분야 참고도서류 등(해외 자료의 경우, 약 70여 개국의 회의자료 및 150개국의 법령자료를 소장. 그 중 美, 英, 佛, 獨은 18세기 이후 기본적인 자료를 망라·수집함. 기탁지정을 받은 정부 간 국제 관계 자료로서 국제연맹·국제연합과 그 전문기관, EU, 등의 자료도 소장)
신문자료실	- 신문의 원지, 신문의 축쇄판, 복각판(복제판), 신문의 마이크로필름, 신문스크랩자료 등

출처: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http://www.ndl.go.jp/jp/service/tokyo/readinginfo.html>) 재편집

으로 해당 행정기관이 보유한 것이다. 관보·백서·신문·서적 등 불특정다수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나 특정역사공문서등, 정령에서 정한 연구소 그 위의 시설에 대해 정령의 결정에 따라 역사적 또는 문화적 자료 또는 학술연구용 자료로서 특별히 관리된 것은 제외한다. 법인문서는 독립행정법인 등의 임직원이 업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로 해당 독립행정법인 등의 임직원이 조직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독립행정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제외되는 문서는 행정문서에서 제외되는 것과 동일하다. 특정역사공문서등은 역사자료 중에서 행정기관이나 독립행정기관이 보유한 문서로 보존기간이 만료되어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것을 말하며 이러한 행정기관을 제외한 국가기관이 내각총리대신과 협의를 거쳐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된 문서를 말한다. 아시아역사자료센터의 경우 국립공문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아시아역사자료 중 디지털화가 완료된 자료 순으로 받아 공개하고 있으며 원 자료는 각 소장기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방위(명치이후 구 육군 및 해군)·황실관련 국가 문서는 외무성 외교사료관, 방위성 방위연구소 전사연구센터사료열람실, 궁내청 궁내공문서관에 소장되어있고 국립공문서관에는 소장되어있지 않다. 이처럼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은 매우 다른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데 국립국회도서관은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형태의 광범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며 국립공문서관은 국가에 중요한 공문서가 중심이다.

3.3.3 자료의 수집방법 및 분류방법

국립국회도서관은 납본이 주가 되며 기록, 구입, 기증, 교환, 유증, 행정 및 사법의 각 부문에서 이관, 직원 파견을 통한 수집방법이 있다. 또한 웹사이트, 개인의 온라인자료, 국내박사논문은 온라인 수집을 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의 수량은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약 4,188만 2천점에 이른다.³⁾ 국립국회도서관의 납본은 수량이 정해져 있는데 기관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국립공문서관은 주로 행정·사법·독립행정법인 등으로부터 이관과 개인이나 법인의 기증·기탁이 있다. 기증·기탁의 경우 법인 혹은 개인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의 역사공문서등을 받는다. 첫째,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국무대신 등의 이념, 행동을 유추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 중요 정보가 기록된 것, 둘째는 국립공문서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정 공문서의 기록된 정보를 보완하는 중요한 정보가 기록된 것,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의 통합, 폐지, 민영화에 의해 역사공문서등이 계승되지 못해 흩어져 없어질 우려가 높은 것이다.

국립국회도서관은 국립국회도서관분류표(National Diet Library Classification, 이하 NDLC)에 따라 분류된다. 이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출판물을 입수, 소장하고 이 장서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분류법이다. 알파벳과 정수의 혼합형 비십진법이며 소장 자료 구성을 반영하여 사회과학에 중점을 두었다. 헌정자료는 자료에 따라 소장자,

3) 담당자와의 전화면담을 통해 2016년 소장 자료 수를 파악하였음(2017.1.16.).

소장처, 국가별로 분류된다.

국립공문서관의 행정·법인 문서는 파일관리부에 기재된 사항 등에 의해 분류되어있다.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것들을 '문서파일'로 묶고 해당 기관의 사무 혹은 사업의 성질과 내용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알기 쉬운 명칭을 부여하도록 하였다(이경용, 2015). 또한 행정문서파일 편철방법은 연도별로 수시 정리하는 '수시 파일링 방식'과 우선 개개의 행정문서에 명칭, 보존기간, 보존기간 만료일을 설정하고 일정 사안 처리가 완결된 단계에서 편철하는 방식인 '사안 완료시 파일링 방식'이 있다(남경호, 2011).

3.3.4 서비스

두 기관의 공통 서비스는 자료검색, 열람, 참고, 대출, 복사, 디지털 컬렉션/디지털 아카이브, 전시회, 견학, 조사연구 등이 있다. 자료의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며 디지털화 된 자료의 경우는 디지털 컬렉션/디지털 아카이브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하다. 대출과 복사 서비스, 참고 서비스는 두 기관 모두 개인이 아닌 도서관 단위에서만 가능하다. 서비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열람 서비스는 국립국회도서관에 직접 내관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격은 18세 이상이지만 관장이 허가하는 경우는 18세 미만도 가능하다. 국제아동도서관의 경우는 성인 외에 아동도 열람이 가능하다. 귀중서, 준귀중서, 헌정자료, 영상자료, 기계가독형 자료는 사전에 허가 신청을 받은 후 열람이 가능하다. 동경본관, 관서관, 국제아동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가 가능하다. 단, 동경본관에서 관서관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며, 관서관에서는 동경본

관, 국제아동도서관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데 국제아동도서관에서는 관서관과 동경본관의 자료는 받아볼 수 없다. 복사서비스가 가능하며 서양서의 일부는 전자 저널로도 제공이 가능하다. 대출은 개인의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대학이나 해외, 인근 도서관 단위의 대출은 가능하며 대출된 도서관에서는 관내열람만 허용한다. 국제아동도서관의 경우 학교 및 공공도서관을 통한 대출이 허용되지만 일반적으로 관내열람과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관내열람의 경우 연령 제한은 없으며 이용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국가나 공공의 안전, 감시, 기업 기밀 등의 이유로 열람이 불가능 경우도 있다. 대출은 공공목적으로 국가기관이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전시회용에 한해 대출이 되지만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행사 내용이 국민생활이나 교양 향상에 기여하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공성을 띤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둘째, 검색 서비스는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디지털 컬렉션 외에 다양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립국회도서관은 관 내외 자료를 전방위로 검색할 수 있는 NDL search를 갖추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 전자데이터 검색서비스, 소장 자료 검색서비스인 NDL-OPAC, 동일본 대지진관련의 아카이브 '하나기쿠', 입법 관련 정보 검색서비스인 국회회의록, 제국회의록, 제국의회회의록, 일본법령색인이 있다. 또한 인터넷 수집자료 보존사업인 WARP(Web Archiving Project), 도서관자료·웹사이트·각종 DB·관계기관정보를 특정주제나 자료별로 소개하는 ResearchNavi, 역사적 음원 검색 사이트,

국제아동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을 위한 키즈 OPAC이 제공되며 국립국회도서관이 전국도서관과 함께 협력·구축하고 있는 조사DB인 참고서비스 협동DB,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제언을 위한 조사기관인 국회사고조, 디지털 전시회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디지털 아카이브와 ‘공문서로 보는 일본의 발자취’라는 검색 서비스가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의 경우, 관내 소장 자료뿐 아니라 횡단검색 시스템으로 관외 소장 자료 검색도 가능하다. ‘공문서로 보는 일본의 발자취’는 시계열 역사자료 소개 사이트로 원하는 시대에 해당하는 공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디지털 열람이 가능하다. 이렇듯 국립국회도서관이 국립공문서관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검색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조직의 인적 구성원 및 넉넉한 재정에 일차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는 전혀 제공할 수 없는 공문서를 중심으로 일본이란 국가에 관해 교육까지도 가능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전시회 및 견학 서비스로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 모두 전시회와 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전시회는 두 관 모두 온·오프라인의 전시회를 모두 진행하고 있다. 견학의 경우,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일반, 중고생, 외국인 대상의 견학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내용을 달리 하고 있다. 전반적인 도서관 안내, 서고 견학 외에 중고생의 경우 ‘직장 견학’이라는 이름으로 취업 인터뷰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초중고생, 대학생, 일반, 교원 등 다양한 대상으로 실시되며 국립공문서

관 소개, 자료 열람 체험, 서고 견학, 자료의 수리 및 복원에 관한 견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조사·연구 서비스를 들 수 있는데 두 기관 모두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입법조사와 예측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입법 조사는 위원회 및 의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법안 등의 조건 분석·평가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과제, 국내의 제도, 법안 요강 작성 등에 관련한 의뢰 조사로, 이는 단기 국정과제 뿐 아니라 국정 중장기 과제에 관한 연구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대상으로 예측되는 사항을 자발적으로 조사 분석하는 예측 조사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국회도서관 간행물인 『레퍼런스』, 『외국의 입법』, 『조사와 정보: 이슈 브리프』, 『조사자료』 등에 정리하여 국정심의 참고자료로 각 당 및 의원, 의원사무국 등에 배포하고 있다. 그 외에 국제아동도서관에서 아동서 및 아동의 독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은 당관이나 국가기관이 보존하는 자료의 위치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소장 자료의 목록이나 내용에 관한 조사·연구, 외국공문서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국회보좌라는 주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정 관련하여 다방면으로 조사·연구를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국립공문서관은 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심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국립국회도서관은 납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서 대상으로 참고 서비스, 복사

서비스, 도서관으로의 대출 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다. 키즈 페이지를 통해 아동에게 국립국회도서관과 국제아동도서관 정보 제공, 시각장애인을 위해 도서관을 통한 자료대출, 점자 녹음 도서종합목록 작성, 장애인담당사서 연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일본 담당사서를 위한 국내 연수 및 파견 연수 실시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대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피재공문서등 구원팀'을 설치하여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문서를 수리, 복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이 특이하다.

이상과 같이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은 서로 다른 자료와 서비스 대상, 체계, 업무 내용 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방식에 대해 김유승(2012)은 문화유산기관 간 협력방식에는 각자의 고유한 운영과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최소 통합, 특정 프로젝트 또는 특정 부서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선택적 통합, 마지막으로 기관의 완전한 조직적 통합을 의미하는 완전통합까지 크게 세 가지 수준의 통합 방식이 있다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 두 기관의 협력은 부분적인 선택적 협력으로 파악되는데 이를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첫째, 두 기관의 디지털 소장 자료에 대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제공의 확장이다. 국립국회도서관 NDL Search에서는 국립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와 국립공문서관 아시아역사 자료센터 DB에 등록되어있는 디지털화된 자료

검색 및 열람이 현재 가능하다. 이에 비해 국립공문서관의 횡단검색에서는 국립국회도서관 자료의 소장 정보를 검색할 수는 있으나 디지털 열람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국립공문서관에서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자료에 대한 디지털 열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두 기관 간 시스템 담당자 중심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람 서비스 확장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둘째, 국립공문서관 주관의 역사공문서 등 소재정보 네트워크 검토연락회의가 있다.⁴⁾ 이 회의는 국립국회도서관뿐 아니라 궁내청궁내공문서관, 방위성 방위연구소전사연구센터, 외무성 외교사료관, 국립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 중의원헌정기념관, 최고재판소사무총국, 일본은행금융연구소아카이브 등이 같이 참여한다. 2001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였는데, 연 3-4회 개최되며 역사공문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그러므로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이러한 회의를 활용하여 일본의 역사와 관련된 소재 정보를 궁극적으로 통합하고 디지털 열람까지도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논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시회를 통한 소장 자료의 대출이다. 이 제도는 두 기관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다른 문화유산기관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대출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 전시회 목적으로 매년 20여회의 자료대출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할 정도로 국립공문서관으로의 소장 자료 대출은 단 한 건도 없었다.⁵⁾ 하지만 2017년 4월 공문서관 주최 '탄생 일본국 헌법' 전시회에

4) 협력 부분은 국립국회도서관의 경우 담당자와 전자 우편으로 파악하였으며,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담당자와 전화 면담을 통해 파악하였음(2017.1.12.)

5)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연보(<http://www.ndl.go.jp/jp/publication/annual/index.html>)

국립국회도서관 자료가 소수 포함되어서⁶⁾ 이러한 변화를 통해 부분적이거나 두 기관이 전 사회를 통해 소장 자료의 활용과 상생의 협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4. 협력 방안 및 시사점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유사 기능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지식 정보 서비스 제공 및 확장으로 문화유산을 보존, 수집, 관리하여 다양한 문화 기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복합 문화 공간 지향으로 지식 정보 활용과 함께 전시, 견학, 체험, 공연 등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수요자 유형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관의 홍보와 다양한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란 점이다. 셋째는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검색 및 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하며 이용자와의 소통 창구로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은 위에서 전술한 협력 외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고 두 기관 모두 공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기관이므로 사무적인 수준에서의 협력이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 정도이다.⁷⁾ 하지만 문화유산기관의 협력은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풍부한 문화정보 접근을 가능하게 하며 제한된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조윤희, 2008). 또한 디지털 환경 속에서 두 기관의 협력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된 공공정보원인 두 기관의 자료는 이용자들에게 증립적이며 안전성이 검증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서혜란, 200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두 기관의 협력은 멀지 않은 시기에 현실적인 필요와 당위적인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그러므로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제안할 수 있는 협력방안은 다음과 같이 총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1 역사관련 소장 자료의 통합 DB의 구축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 중에 고전 자료, 헌정 자료, 의회 관청 자료 중 역사 관련 자료와 역사음원이라는 디지털 자료가 있다. 역사 관련 자료로 고전적 자료는 귀중서, 준 귀중서, 에도 시대 이전 고서, 청대 이전의 중국서가 있으며 헌정 자료에는 막부 말에서부터 현대 정치가들의 관련 자료, 과거 일본의 점령에 관한 자료, 일본계 이민자들의 자료 등이 있다. 역사적 음원은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일본 국내에서 제작된 민요, 성악, 만담, 가부키, 동요 등 다양한 장르의 레코드 음반을 디지털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도 특정 역사 공문서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아카이브 외에 '공문서로 보는 일본의 발자취'라는 시계열적 역사정보 제공 검색사이트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실 이용자 입장에서 찾고자 하는

6) 국립공문서관 담당자와 전화면담을 통해 파악하였음(2017.3.23.)

7) 국립공문서관은 담당자와 전화면담을 통해 파악하였음(2017.3.23.), 국립국회도서관은 담당자와 전자 우편을 통해 파악하였음(2017.3.28.).

역사 관련 자료가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지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국립국회도서관에서는 국립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검색이 되지만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국립국회도서관의 소장 자료 검색만 가능하고 디지털로 열람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역사'라는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국립국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역사적 음원과 국립공문서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아시아 역사자료센터의 역사 관련 주제 소장 자료에 대한 통합 DB 구축을 한다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기관의 소장 자료 기술방법에 대한 표준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화 되지 않은 역사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이용자들을 위한 유용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국립공문서관 주관의 역사공문서 등 소재정보 네트워크 검토연락회의와 별도로 두 기관이 공동으로 통합 주제 개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도별 주요 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모든 자료와 기록물을 수집하여 일본의 도서관과 기록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이다.

4.2 재난 정보 아카이브의 구축

국립국회도서관은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회사고조리는 기관의 자료도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 국회사고조는 동경전력 후쿠시마 원전 피해에 관한 조사·제언을 위한 일본 헌정사상 국회에 설치된 독립된 조

사기관으로 2012년 10월 25일까지의 위원회의 활동과 보고서, 자료 및 동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아카이브인 '하나기쿠'는 2011년 3월 일본 동일본대지진이 발생 후 그 기록을 영구 보존 및 과학적 분석으로 후세에 교훈을 남기고 국내외로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버드대와 함께 지진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로 진행되었으며 기존 여러 도서관에 분산·수집된 동일본 지진 관련 자료를 합친 것이다. 수집대상은 공적기관이 소장하거나 작성한 기록과 기초적 데이터, NPO 및 자원봉사 단체 활동 및 피해지 상황 기록, 학술기관이나 단체에 의한 조사 및 연구 기초 데이터, 기업의 활동 기록, 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발전소 피해와 사고에 관한 기록, 피해 관련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담은 동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디지털 콘텐츠뿐만 아니라 인쇄물도 수집하고 있다.

국립공문서관의 경우, 재난에 관한 별도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지 않지만 재난관련 공문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관내에 '피재공문서등 구원팀'을 설치하여 수해 등으로 피해 입은 공문서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된 공문서등의 피해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피해규모나 상태에 따른 기술적인 조언, 필요한 기자재 대여, 안전 활동을 위한 인재연수 등 구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가차원에서 자국의 재해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재난 예방에 반영하는 것은 비슷한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지구 환경에서 그 의미는 크다. 그러므로 두 기관이 각각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재해 관련 자료를 하나로 통

합하여 서비스할 필요가 있다. 지진, 수해, 쓰나미, 원전 피해 등을 국가 재난이라는 좀 더 큰 범주 아래 두고 각각의 재해의 종류별이나 재난 지역별, 시기별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여 재난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국가차원에서 통합, 관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기관의 통합적인 재난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 차후에 있을 재난에 대한 대비나 신속한 복구 작업을 위해 바람직하다.

4.3 공동 전시회 개최

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제를 정해 개최하면 관련 자료의 다양한 수집이 가능해 전시 내용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장 자료 대출만이 아니라 일본의 역사적 사건이나 기념일을 주제로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함께 모아서 기념일을 전후로 두 기관이 계절별로 이동 전시한다면 이용자들은 보다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 전시뿐 아니라 온라인 전시도 시행하여 두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공동으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국립기록관이 소재하지 않은 교토 소재의 관서관에 국립공문서관의 소장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도 시도할 만하다. 2012년부터 동경 이외의 지역 박물관이나 대학에서 국립공문서관 주최의 전시회가 있었으나 국립국회도서관 관서관에서는 개최되지 않았다. 관서관에서 정기적인 국립공문서관 주최의 전시회가 열린다면 거리상의 문제로 국립공문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관서 지방의 이용자 정보요구 충

족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다. 특히 2007년 군마현립 문서관에서 초등학교에 전시 판넬을 대출하여 수업에 활용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전시뿐 아니라 수업에 활용하여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小高哲茂, 2007).

4.4 학습 프로그램의 실시

학교와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은 이미 지방 문서관에서 초·중·고교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이 협력하여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 보다 다양하고 심도 있는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군마현립 문서관의 경우, 2002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여름방학! 어린이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으로 문서관의 소개, 시설견학, 소장 자료를 활용한 체험 등의 활동을 하였고 2007년에는 문서관에서 초등학교에 전시 판넬을 대출하여 수업에 활용한 사례도 있다(小高哲茂, 2007). 사이타마현립 문서관에서는 중학교 2학년 사회과 선택 과목에서 ‘문서관에서 실제 사료를 만져보자’라는 코스로 학생들이 내관, 관내 소장 자료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강사를 학교로 파견하여 수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 수업 의뢰를 받아 ‘사이타마현 입체지도 만들기’와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전후보도사진, 신문기사 등을 이용한 수업,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한 ‘인문에 관한 역사신문 만들기’ 수업 등이 진행되었다(三田博, 2007). 기후현 역사자료관에서는 ‘수업에 사용가능한 당관소장 사료선’을 만들어 월 1회 전 초중학교에 메일로 송신하고 있

는데 그 내용은 자료 사진과 그에 대한 해설 등이 진행되었다(田添好男, 2007).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이용되는 자료는 해당 지방의 문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지방 자료에 국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를 모델로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이 협력하여 초·중·고교의 교과목과 교육 내용에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광범위한 양질의 자료를 풍부하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교육 효과는 물론 양 기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우에노 소재의 국제아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학습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면 학생들 수준에 맞는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도서관과 기록관 담당자들과 교사들이 협업하여 직접 도서관과 기록관의 자료를 이용하여 강의를 계획할 수 있고 다양하고 세분화된 장르의 주제별/시대별 컬렉션을 학년별 맞춤 교육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역사적 가치를 지닌 다양한 원 자료를 교육용으로 제공하면 학생들은 1차 자료의 직접적인 접근을 통해 과거에 관한 정보와 증거를 더욱 생생하게 받아들이고 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될 것이다. 시대별, 학년별, 활동별 교육 컬렉션을 구성하여 교사들이 직접 문서나 자료를 선택하여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도 있고 활동을 설정하여 학생들을 위한 지침서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에 관해 교육 주제나 교재를 개발하고 더 나아가 국가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 방안을 교사들의 참여와 두 기관의 협업을 통해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각 기관의 특색 있는 소장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웹사이트

를 통해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일반인을 위한 교육 자료로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규모와 차이점을 고려할 때, 두 기관의 부분적 협업을 위해 사업별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장단기 프로그램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소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해서 협업을 위한 소위원회의 정책 개발 내용을 설정하고 위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 자원과 기술, 관련 제반 사항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5. 결 론

도서관과 기록관은 소장 자료의 구성과 정리 기술 체계, 서비스에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방대해진 정보의 양과 디지털 환경의 도래로 이용자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좀 더 손쉽게 찾기를 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대표적 문화유산기관인 국립국회도서관과 국립공문서관의 설립 과정 및 목적, 관련 법령 및 정책, 시설, 자료, 서비스를 비교 분석하고 두 기관의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두 기관은 그 소장 자료의 내용과 양, 조직 규모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완전한 협력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 이는 기관의 설립근거, 소장물의 상이한 성격과 관리방식에서 조직의 임무와 사명, 법적 근거, 조직의 구성과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는 디지털 정보 서비스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협업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분야가 있고 두 기관이 가진 문화유산기구로서

의 사회적 책무를 생각할 때 두 기관의 협력 시도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보존을 강조하는 특성을 가진 기록관인 국립공문서관에서도 이용자들이 주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두 기관의 협력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한 단계 나아간 것과 같다.

그러므로 두 기관의 공통 목적을 바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과제를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도서관과 기록관의 교류를 통해 기관간의 접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기관의 사명과 목표에 대한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두 기관의 시스템 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두 기관이 긴밀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조력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일부 소장 자원에 대한 합의된 부문별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작으로 재난 정보 아카이브 같은 특별 주제 개발을 통한 컬렉션 개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시회 공동 개최, 소장 자료를 활용한 역사 교육 학습 프로그램 공

동 개발 같은 것을 적극 실행한다면 협력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협력의 시작은 기관간 문화유산 콘텐츠 공동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대상별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해 정보와 기록물의 가치가 극대화되고 재창출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연계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은 기관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관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앞으로 문화유산기관의 역사적 사명을 위해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고 개방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와 지식 정보 기록 서비스를 극대화하고 지성적이며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평생 학습을 지향하는 미래 사회의 다양한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식문화를 창출하는 융복합 문화소통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小高哲茂 (2007). 文書館における學校連携事業への取り組み—群馬縣の事例から— *アーカイブズ*, 30, 15-19.
- 곽건홍 (2013). 문화유산기관의 발전 전략 비교 연구. *기록학연구*, 35, 3-40.
- 김민경, 이성신 (2014).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공간 협력 방안.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7(1), 1-24.
- 김유승 (2012). 국회 라키비움의 전망에 관한 연구: 기억기관 협력 정책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2), 93-115.
- 남경호 (2011). 일본의 공문서관리법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 체제 검토. *기록학연구*, 30, 205-247.
- 남궁황 (1999). 도서관과 기록보존소의 업무에 관한 비교 분석. *한국비블리아*, 10, 117-136.

- 高埜利彦, 김경남 (2013). 조용한 민주혁명: 일본의 기록관리개혁운동의 역사와 최근의 동향. 기록학 연구, 36, 271-276.
- 三田博 (2007). 埼玉縣立文書館における教育連携事業. アーカイブズ, 30, 24-28.
- 박성진 (2008). 근대 공문서 소장 현황과 협력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75-88.
- 서혜란 (2005).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도서관과 기록관의 협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 25-41.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5(3), 249-271.
- 이경용 (2015). 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연구 - 법령과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5, 219-253.
- 이소연 (2012). 함께 만드는 미래: 디지털융합과 문화유산기관의 협력. 정보관리학회지, 29(3), 235-256.
- 정미라 (2009). 도서관, 박물관, 기록관의 정보자원 공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조윤희 (2008). 정보자원 공유를 위한 문화유산기관 협력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9(2), 5-21.
- 최영실 (2013). 라키비움 공간기획을 위한 리모델링 대상 기관의 현황 분석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2), 143-167.
- 최영실, 이해영 (2012).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의 기능 계획.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3(4), 457-477.
- 최재희 (2008). 국가차원의 문화유산기관 협력체 구성사례 및 시사점.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2), 61-74.
- 田添好男 (2007). 岐阜縣歴史資料館における學校支援活動. アーカイブズ, 30, 29-33.
- 한희정, 육혜인, 오유진, 김용 (2014). 문화유산기관의 협업을 통한 교육서비스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 기록관리학회지, 14(2), 31-60.
- Rayward, W. B. (1998). Electronic Information and the Functional Integration of Libraries, Museums and Archives. in E. Higgs (Ed.), History and Electronic Artefacts, 207-224.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Yarrow, Alexandra, Barbara Clubb and Jennifer Lynn Draper (2008). Public libraries, Archives and Democratisation. The Heritage of two Representative Systems in one country. The Case of German Archives.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5, 8, 3-26.
- Zorich, Diane, Waibel, Gunter and Erway, Richy (2008). Beyond the Silos of the LAMS: Collaboration among 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Report produced by OCLC Research. <<http://www.oclc.org/content/dam/research/publications/library/2008/2008-05.pdf>>

[관련법령]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법」 <<http://law.e-gov.go.jp/htmldata/S23/S23HO005.html>>

「일본 공문서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http://law.e-gov.go.jp/cgi-bin/idxselect.cgi?IDX_OPT=2&

H_NAME=&H_NAME_YOMI=%82%b1&H_NO_GENGO=H&H_NO_YEAR=&H_NO_TYPE=2&H_NO_NO=&H_FILE_NAME=H22SE250&H_RYAKU=1&H_CTG=1&H_YOMI_GUN=1&H_CTG_GUN=1>

[웹사이트]

일본 국립공문서관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jp/>>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dl.go.jp/>>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연보 <<http://www.ndl.go.jp/jp/publication/annual/index.html>>

일본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Cho, Yoon-Hee (2008). Cooperative Plans for Information Resource Sharing of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2), 5-21.

Choi, Jae-Hee (2008). A Case Study on the MLA as an Example for the National-Level Cooperation between Cultural Institution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61-74.

Choi, Youngsil (2013). A Study on Analysis of Remodeling Target Institution for Larchiveum Spatial Plann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143-167.

Choi, Youngsil & Rieh, Hae-young (2012). Functional Planning of Larchiveum that Integrates the Functions of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3(4), 457-477.

Chung, Mi-ra (2009). Study on the Plan for Sharing Library · Museum · Archive Information Resources. A Master's Thesis from Chung Ang University.

Han, Hee-Jung, Yuk, Hye-In, Oh, Yu-Jin, & Kim, Yong (201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Services to Collaborate between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4(2), 31-60.

Kim, Minkyung & Lee, Seongsin (2014). The Collaborative Workplace among Archives, Libraries, and Museums. *Issues and Policies in Social Science*, 7(1), 1-24.

Kim, You-Seung (2012). A Study on Perspectives of the National Assembly Larchiveum:

- Focused on Discussion about Collaborative Strategies of Memory Institution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2(2), 93-115.
- Kwak, Kun-Hong (2013).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Strategies of Cultural Institution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5, 3-40.
- Lee, So-Yeon (2012). The Future We Make Together: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3), 235-256.
- Nam, Kyeong-ho (2011).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under enforce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in Japa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0, 205-247.
- Namgoong, Hwang (1999).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Tasks Carried out in the Library and Archives. *Korean Biblia*, 10, 117-136.
- Park, Sung-Jin (2008). Collection Status of Modern Public Records and Cooperation Issue: in the Museum, Archives, and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8(2), 75-88.
- Seol, Moon-Won (2008). A Study of Strategic Planning for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5(3), 249-271.
- Suh, Hye-Ran (2005). Collaboration between Libraries and Archives for the Preservation and Use of Documentary Heritag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2), 25-41.
- Yi, Kyoungyong (2015). A Study on the Reform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45, 219-253.

